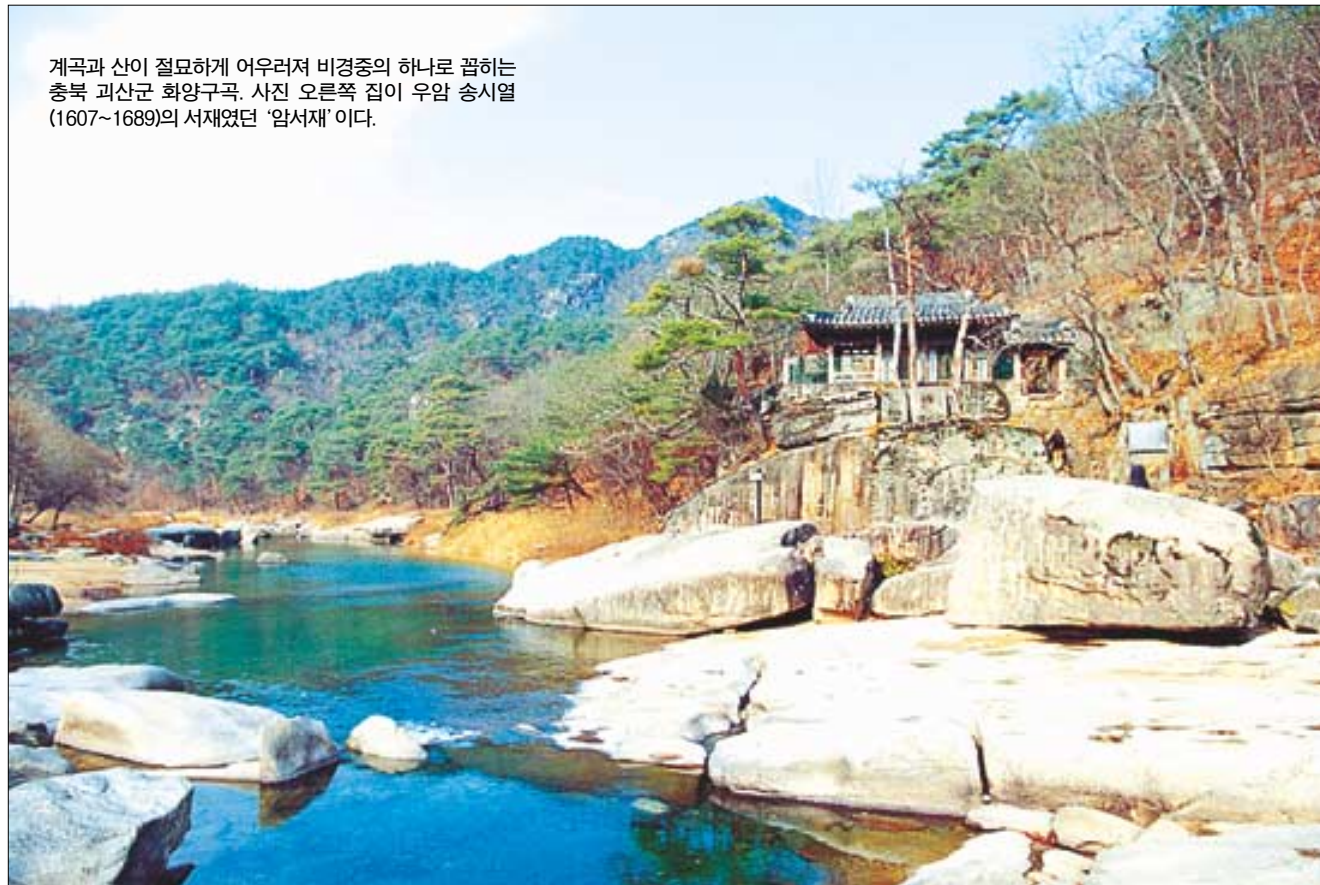


다시 쓰는 택리지 1·2·3

신정일 지음
휴머니스트 발행/각권 1만4천원



25년간 5대 강과 수백개 산 오르며
발품 팔아 쓴 땅과 사람의 역사



계곡과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비경중의 하나로 꼽히는 충북 괴산군 화양구곡, 사진 오른쪽 집이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서재였던 '암서재'이다.

우리 산하에 스며있는 선인들의 숨결

요즘 흥행 대학을 터트린 영화 제목중에 '말죽거리 잔혹사'가 있다. 그런데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한테 '말죽거리'가 어디며, 또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물어보면 고개를 가우뚱한다.

'말죽거리', 분명 서울 어딘가에 있을텐데, '말(馬)'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렵듯한 짐작만이 난무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시대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가던 도중, 지금의 서울 양재역 부근에 유생 김이 등이 쫓아 올린 팔죽을 말 위에서 먹고 갔기 때문에 말죽거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재야 문화사학자 신정일(50) 황토현문화원 구소장이 쓴 <다시보는 택리지>를 펼쳐 보면 우리나라 웅망한 지명(地名)의 역사를 알 수 있다. 25년간 우리 산하 구석구석을 걸으며 다니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묘한 사연들을 채취해 책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제목은 <다시보는 택리지>다. 이번에는 <경기·충청편(1권)>, <전라·경상편(2권)>, <강원·한경·평안·황해편(3권)> 등으로 팔도 총론 편을 펴냈으며 나머지 지리·인심·산수 등 2-3권도 곧 출간할 예정이다.

원래 우리문화유산 답사기의 원조격인 <택리지>는 조선 후기 이종환(1690~1756)이 쓴 인문지리서다. 조선후기 당시만 해도 <경감록>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리던 베스트셀러였

다. 사화(士禍)에 연루돼 유배로 짧은날을 보내고, 실의에 빠져 살던 그가 20여년의 방랑 생활을 한 뒤에 <택리지>를 썼다고 전해진다.

이에 못지 않게 저자인 신 소장도 '오른손에 <택리지>를, 왼손에 대동여지도를 들고 찾아나섰다'고 말할 만큼 우리 땅을 살살이 훑고 다녔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등 5대 강과 수백개의 산을 오르내리며, 1,000회 이상을 답사했다.

이종환의 <택리지>가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면 250년 뒤에 출간된 <다시 쓰는 택리지>는 우리 산하에 녹아 있는, 또 그곳을 살다간 선인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느끼고자 했다. 우리 현재의 삶이 책 속에 더해진 셈이다. 그러다보니 곳곳에 그사이 사라져버린 나무와 시장 등에 대한 저자의 안타까움으로 가득하다.

호남에서 유명한 포구가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던 백방포(白房浦)였다. 현재의 땅갈 마을 근처이다. 백방포는 중국으로 가던 유명한 바닷길의 출발지였다. 신라의 최치원이나 김가기가 당나라 유학 갈 때 출발하던 곳이었다. 송종만 만나던 하루 만에 중국 영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도 이 포구에는 남송으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가족들과 이별하거나 기다리던 곳이었다. 현재는 간척을 해서 들판으로 변해버렸다고 기록하

고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인문지리로 포괄되는 여러 분야 중에서 역사와 인물지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인의 퇴계, 청양의 이몽학, 안동의 유성룡, 해남의 윤선도, 전주의 정언신, 합천의 정인홍, 평양의 정지상 등 역사적 인물에서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리적 장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병화 정랑사를 비롯해 공주 영평사, 동해 삼화사, 춘천 정평사, 대구 가뉘위, 울산 석남사, 김천 청암사 등 30여 사찰의 역사도 소개돼 있어 불자들에게 유익한 사찰 안내서 역할도 겸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5박 6일의 짧은 일정만으로 다녀온 북방길을 집어넣은 것. 자료에 의존하고 이전 사람들의 답사기를 짜깁기하면서 가지 않은 곳까지 소개한 대목은 역시 발품을 안팔아서인지 탐념세가 많았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취지에 대해 "인문지리는 최소 50년 단위로 다시 쓰여져야 되는데 이종환이 <택리지>를 집필한 뒤 25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과 몇 십 편의 논문이 나왔을 뿐"이라며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명멸해 갔는지 시공을 뛰어넘어 시냇가에서 자갈을 고르듯 들춰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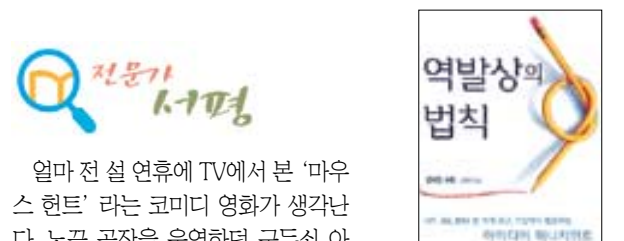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힘겹게 그 길들을 걸으며 느낀 것은, 산천이 나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 그 길들을 울곧게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성,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경주 남산의 불상중 가장 크며 조각이 우수한 불상이 상선암 마애석가여래 대불좌상일 것이다. 아득히 깔린 경주 일대를 바라보는 부처님은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전환의 군사에게 포위당한 왕건은 신승겸이 태조로 가장하여 수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함으로써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였다. 그때 신승겸·김락 등 여덟 장수가 모두 전사하였으므로 이름을 팔공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역발상의 법칙
로버트 서튼 지음 오성호 번역
황금가지/1만5천원

얼마 전 설 연휴에 TV에서 본 '마우스 헌트' 라는 코미디 영화가 생각난다. 노곤 공장을 운영하던 구두쇠 아버지로부터 달랑 낚은 집 한 채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약간 모자란 두 형제가 영악한 주인공이자 그 집의 터줏대감인 생쥐 한 마리와 맞닥뜨리게 된다. 형제는 성가신 생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결국 그 집마저도 풍비박산이 나게 돼 실의에 빠진다. 하지만 생쥐는 두 형제에게 경영난에 빠진 노곤공장에서 실타레 모양의 치즈를 생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형제의 들도 없는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두 형제가 처음부터 노곤공장에서 치즈를 생산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영화도 재미없었을 것이고 두 형제 또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영학자인 로버트 서튼 교수는 최근에 출간된 그의 저서 <역발상의 법칙(원제: Weird Ideas That Work)>에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역발상이란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낸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전환적 발

엉뚱한 생각이 행복 부른다

HP·IBM 등 성공 기업과 12가지 실천방법 제시

상이며 12가지의 '역발상의 법칙'을 통하여 기존의 생각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해 혁신에 이르는 과정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역발상 12법칙'은 다음과 같다.

△기업 코드에 적을 못하는 '고분관'을 고용하라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고용하라 △필요 없는(혹은 없을지도 모르니)사람을 고용하라 △면접에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아이디어를 보라 △상사나 동료들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싸우려 하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을 주라,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처벌하라 △실패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린 후 모두에게 분명히 성공한다는 확신을 주라 △말도 안되는 것을 생각해 내고 실행계획을 세워라 △돈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피하든지 편청을 부려 지루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마라 △과거는 잊어라, 특히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저자는 이와 같은 역발상의 법칙을 휴렛 팩커드, IBM, 3M 등의 성공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여 설명하면서 몇몇의 선도적인 기업, 혁신적인 조직, 창의적인 아이디어맨들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가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이러한 역발상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역설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존의 검증된 안정적인 방법을 고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줄이고 당장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그것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낳고 관성적인 조직의 불분율을 만들어 창의적 인재의 진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의를 막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때때로 우리는 안정상태가 깨어질 때 불충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견하기도 한다. 핵융합이 그렇고 정치개혁이 그러하며 인류를 진보하게 만든 위대한 발명도 그러하다. 이제부터라도 저자와 함께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역발상을 찾아서 스피릿 있는 탐험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김홍기(에드워드글랜터엔터프라이즈 대표)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만원
인도의 3월은 초여름으로 12월이나 1월달 보다 순례하기에 훨씬 기우가 좋습니다.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전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켄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살리(유미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경경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12일, 3월 4일, 3월 23일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저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9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판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중)-양곤(세다곤대탑,까비에파고다-진신사리친전)-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12일, 4월 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 고대불교유적-폴른나무와 불교유적-시그리야 고대왕궁-담불라당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일일별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베트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 23일, 4월 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연으로 특색있는 티베트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베트일주11일(티베트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라사-포탈라궁-장제-시가체-라제-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여행사를 방문하시는 분께 수미산 사진집을 드립니다.

이젠! 깊은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렘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사용후
· 법당과 선방으로 배합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자간까지 순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래는 물론 내뿜 재료를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계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발인의 냄새는 물론 담배냄새까지 절절 끊어주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격저,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격정을 덜어주는 천연향 물질의 힘이 담긴 향일경이를 하루에 한알(적은일은 두세알)씩 두루뭉개 보충시켜주시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의 신비로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힐"이며 담양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영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힐"을 느껴 보십시오.

제조원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행정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